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서광현 원장



▲국가표준과 기술, 산업의 전략적 연계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 ▲고도 지식 경제사회로의 전환 ▲국민생활 속의 다양한 표준화 ▲세계 일류의 국가표준체계와 안전기반 구축이 기술표준원의 비전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역량을 결집해나가고 있는 서광현 원장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Q 취임 소감

A 우선 '국가표준 대표기관'의 원장으로서 기술표준원이 담당해야 할 국가적 사명과 역할을 생각하니 무거운 책임감과 뜨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

기술표준원은 지난 1883년 전환국으로 출발한 이후 지금까지 국가 경제·사회의 발전과 함께 꾸준히 성장해 온 국가표준 대표기관입니다. 민간의 연구기능이 취약했던 지난 1960~70년대에는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기관으로,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가 필요했던 1980~90년대에는 품질·시험연구기관으로 최고의 권위와 명성을 지켜왔습니다. 이후 1996년 기술표준원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바뀌었고, 지금까지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산업표준 50년의 길목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도전과 시대적 사명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WTO TBT 협정 이후 표준의 기능과 역할은 무역이나 산업기술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부각된 만큼 주력산업뿐만 아니라 정보통신·환경·보건 분야 등에서도 적극적인 표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표준원은 국가 표준화기관으로서 무궁한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 개개인들은 표준정책추진 및 시험연구과정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기술표준원의 모든 직원들은 공정한 기회와 뚜렷한 정책방향이 제시될 때 언제나 명확한 정책을 추진하여 국가 발전을 위하여 헌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도 활발히 추진하여 글로벌시대에 부합하는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세계 7대 표준강국 실현 콘트롤타워 역할 박차

Q 기술표준원의 정책방향 및 비전

A 세계 7대 표준강국을 실현하고 국제표준 리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함은 물론, 기업의 시장주도형 기술혁신을 도모하고, 미래 지향적 표준인프라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기술표준원에서는 국가 주요 표준정책사업인 스마트그리드, 스마트 물류, 스마트 의료정보, 스마트 미디어, 3D 산업, 클라우드컴퓨팅, 인쇄전자 등 7개 분야에서 표준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표준화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국책과제와 관련한 국제표준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서광현

학력

- 2010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우체국MBA)
- 2004 고려대학교 공학박사(인터넷보안)
- 1989 美 콜로라도대학교 공학석사(정보통신공학)
- 1983 한국항공대학교 공학사(통신공학)

주요경력

- 現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정보센터장
- 세계은행(The World Bank) IT 정책자문관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 기술정책과장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 통신이용제도과장
-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정보보호산업과장

효과적인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서는 국제표준 전문가를 발굴·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ISO 및 IEC 기술위원회에서 의장 16명, 간사 22명, 컨비너 77명, 그룹리더 7명 등 122명의 국제임원을 배출하여 국제표준화 활동을 주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올해에는 중소기업 전문가들이 국제표준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원천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인들의 활동을 더욱 독려할 예정입니다.

앞서 언급한 표준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한다면 우리 산업계에서 개발한 자체 기술력으로 국제표준을 선점하여 세계시장에서도 당당히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제표준을 리드하는 주도국으로서의 입지도 강화되어 짧은 기간 내에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정책이 추진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기차 국제표준화 활동 적극 참여

Q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전기 분야의 표준선점 현황 및 전략

A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저탄소·녹색성장기반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수송 분야의 CO₂ 배출량을 감축시키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이 자동차와 관련된 표준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와 관련된 독자적인 표준을 제정하는 등 국제표준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이미 제정된 국제표준 도입에 치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국제표준제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여러 기술을 국제표준화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관련 국제표준을 주로 다루고 있는 ISO TC 22/ SC 21 (성능 및 안전) 및 충전시스템, 배터리 등에서 국제표준화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를 친환경 무공해 그린카로 선정해 하이브리드,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PHEV) 관련 기술 표준화와 연료전지 관련 기술 표준화를 중점 표준전략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표준화는 기술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표준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분야의 40개 작업반의 컨비너는 대부분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덴마크, 캐나다 등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 표준에 관심을 기울이며 국제 표준화 활동을 전개한 결과, 2010년에는 5종의 국제 표준을 제안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향후,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제표준화 회의 개최 및 한·중·일 동북아 협력 체계 구축 등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Q 최근 중점 추진되고 있는 표준정책 분야

A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원천 기술이 국제표준이 될 수 있도록 표준화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표준코디네이터 ▲표준기술력 향상 사업 ▲표준개발 협력기관 운영 ▲친서민 생활 표준화 ▲KS인증제도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표준화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표준코디네이터는 △국내기업의 국제표준협력 지원 △부처 간 표준협력 조율 △산업분야별 국가표준 로드맵 수립 △국가 R&D 개발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표준기술력 향상 사업은 새로운 기술 수요분야에 대한 연구 과제를 추진하여 정보통신과 신산업분야 등에 대한 표준화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 R&D 중 산업융합원천기술 개발 사업 등에서 연구개발과 표준화 연계를 통하여 국제표준을 선점하고 개발된 기술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또한, 민간주도형 표준화체제로 개편하기 위하여 KS 개발·관리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기술기준의 KS 부합화 등 표준정책 조율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국가표준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간의 표준개발협력기관 (COSD, 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을 지정·운영하여 KS 관리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 낭비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친서민 생활표준화 계획」을 수립·추진한 결과 50개의 과제가 선정되었으며, 지난해까지 20개 과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서비스 관련 정책과 표준화 연계 사업 및 사회적 약자, 다문화 사회, 친환경성 등을 고려한 장애인 및 고령자 사회복지 표준정책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 해 최대 표준정책으로 부상한 'KS 인증제도 개선'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표준정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다방면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산업표준화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R&D 지원 강화 등을 통한 기업주도형 국제표준화 생태계 조성

Q '표준강국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최대현안 및 해결방안

A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술이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기업주도형 국제표준화 System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현재, 우리기술이 채택된 국제표준(101종) 중 기업이 제안한 표준은 13종으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우리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기업의 개발기술을 표준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업 개발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확대, 국제표준의 사업화 및 활용·확산 촉진, 중소·중견기업의 국제표준화 기반조성 등 지원 사업을 신설·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정부 R&D에 16조 원을 투자하지만 원천 표준개발에 책정한 예산은 305억 원으로 R&D 예산 대비 표준개발 예산은 0.2% 정도에 불과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0.7%(10,380억 원), 0.5%(2,580억 원)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술표준원은 1995년부터 표준기술력 향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2,01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2012년에는 2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선진화된 국가표준체계 확립, 독자적 표준화 역량강화, 표준연구개발, 표준 활용 이행·확산 등을 통하여 국가의 표준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여 세계 표준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향후 R&D 지원 강화 등을 통한 기업주도형 국제표준화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올해는
 ▲핵심표준화과제의 전략적 발굴 ▲투자 구조 개선 ▲전(全) 주기적 과제 관리 시스템 운영이라는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산업계 및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과제 도출, 탄력적인 예산 지원, 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하여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무역기술 장벽 사전 차단 노력 적극 수행

Q FTA 확대 추세에 따른 기표원의 국가경쟁력 확보전략

A 크게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역기술장벽(TBT)과 관련하여, 강제인증제도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시 불리한 규제는 도입 단계부터 파악·분석하고, 해당 정부와 협상을 통하여 무역기술 장벽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의 규제 제·개정 동향을 파악해 국내 기업들에게 제공하여 규제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기업들에게 TBT 매뉴얼을 제작, 제공하는 한편, 관련 담당자들의 교육도 병행할 것입니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무역기술 장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공사례와 대응 필요성을 전파,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FTA TBT 협정의 기술규제 입안과정부터 우리 기업들의 의견 반영 기회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품의 시험성적서나

인증서의 상호인정 등을 통하여 무역기술 장벽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FTA TBT 협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술표준원의 TBT 중앙사무국은 기업들에게 외국의 규제 및 기술기준 제·개정 동향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각국과의 MRA를 통하여 무역기술 장벽을 없애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FTA 확대에 따라 세계시장이 급속히 단일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국제표준화무대에서 자국의 기술표준을 국제표준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WTO가 TBT 협정에서 회원국이 신규기술규제를 도입하거나 개정할 경우 국제표준을 기초로 할 것을 규정하면서 표준의 경제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표준원은 우리기술이 국제표준화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표준화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국제표준 제안, 임원직 수입 추진, 표준화 관련 행사 유치 등 국제표준화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술이 국제표준이 되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 국제표준화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KEA